

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,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

윤 최형순 기자 | 2026.02.24 10:22 승인

중대재해 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 위한 실질적 소통의 장 마련



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의 강사교육 진행 모습

[충청뉴스 최형순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(지사장 조성명)는 지난 23일, 지사 회의실에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사고 예방과 상생 협력을 위한 '2026년도 안전 보건협의체 정기회의'를 실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회의는 지사 담당자와 관내 주요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, 본격적으로 현장의 유해·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이날 회의에서는 「중대재해처벌법」 및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준수 사항을 재점검하고, 각 공사 현장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으로,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,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, 소통 창구 활성화, 봄철 해빙기 안전 점검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.

참석자들은 건설현장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, 단 한 건의 인명 사고도 없는 '무재해 사업장'을 만들기 위해 자율적인 안전 점검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.

조성명 지사장은 "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"라며,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어촌 건설 현장을 조성하겠다"고 강조했다.

한편, 세종대전금산지사는 이번 정기회의 이후에도 주기적인 현장 합동 점검과 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 문화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다.

저작권자 ©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최형순 기자